一萬 문수보살과 함께 걷는 길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⑥ 오대산 중대 사자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산은 저마다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오대산 역시 마찬가지다. 오대산에는 관음, 지장, 대세지, 문수, 나한 등 5만의 보살이 상주한다. 오대산의 이름은 5만의 보살이 상주하는 '다섯 곳(5대)'에서 왔다. 산 전체가 부처님의 그늘이다. 어디서 길을 시작해도 길 끝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있다. 또한 어디에서 길을 잃어도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오대산을 걷는 일은 모두 '순례'다. 어느 길에 들어서도 부처님의 그림자를 밟게 된다. 오대산에 선다. 그 옛날 자장 스님이 걸었던 길을 걷기로 했다. 중대 사자암으로 간다. 그 길은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대 사자암은 적멸보궁을 지키는 외호도량이다.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목, 사자암이다.

문수보살에게 길을 묻다

상원사에서 길을 시작한다. 상원사에서 중대 사자암까지는 걸어서 약 20분길이다. 사자암이 있는 중대는 일만의 문수보살이 상주하고 있다. 그 일만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이는 자장 스님이다. 그리고 상원사가 그 일만보살의 시작이다. 상원사에는 문수보살과 문수동자를 모셨다. 일만 문수의 첫 번째 얼굴을 본다. 문수보살을 염원하는 스님의 염불소리와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문수전에 들러 문수보살과 문수동자에게 길을 묻는다. 사자암으로 가는 길과 마음속에 얽힌 여러 길들을 묻는다. 문수전에서는 많은 대중이 길을 묻고 있다. 길마다 부처님 길인 오대산이지만 역시 길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눈앞에 길은 많아도 그 길을 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이란 '법'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곁에 두고 살아도 부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이 그렇다. 그래도 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백천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자암으로 가는 길을 그렇게 시작했다. 문수보살에게 길을 물었다.

문수보살이 일러준 길을 시작한다. 길은 숲과 숲이 만들고 있다. 산이 허락한 만큼이 길이다. 길이 있다는 것에서 많은 생각이 인다. 마주친 것들과 지나친 것들, 그 속에 남아 있는 것들, 이제는 마주칠 수 없는 것들, 지나칠 수도 없는 것들, 길 하나가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준다. 문수보살이 일러준 길은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가득했다.

한철 뜨겁기만 했던 태양의 빛깔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숲의 빛깔이 달라지고, 바람의 길도 달라지고 있다. 새들도 알고 있고, 벌과 나비, 길목마다 따라오는 다람쥐들도 알고 있다. 늘 우리가 제일 늦다. 와야 알고 가야 안다. 새들보다, 벌과 나비보다 늦은 우리는 그래서 문수보살과 함께 걸어야 한다.

큰길을 조금 걷다보면 작은 개울을 만난다. 개울을 건너면 경사진 계단길을 만난다. 계단길에서는 일 보 일 보가 뚜렷해진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나는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한다. 부끄러운 나, 어리석은 나, 게으른 나, 그렇게 '나'는 점점 늘어난다. 문수보살도 하나 둘 함께 늘어난다. 나 하나에 문수 하나. 그렇게 일만의 문수와 함께 걷다보면 사자암과 만난다.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41~43번 사찰까지 여정 〈上〉

B4 책세상
정념 스님이 오대산에서 보낸편지

B5 문화
불교중앙博 '모악산 금산사~'展

B6 학술
경주박물관 신라학 국제심포지엄